

2019 비교과 교육과정 성공 후기 공모전

전공 역량 우수상

김○은(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소모임 ‘락유’

내 용

1. <락유>에 신청하게 된 동기

‘락유’는 아동을 관객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동화를 연기로 표현하는 연극을 보여주는 동극 소모임입니다. 기존에 아동극에 큰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던 저는 교회에서 유아성경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성경을 주제로 한 연극을 접하며 자연스럽게 아동극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렵다고 생각하던 성경 속 이야기를 재미있고 생생한 연극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니 예배에 집중하지 않던 아이들도 집중해서 보고 듣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한 주가 지나고 극에 나왔던 인물에 관한 퀴즈를 적극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연극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도 직접 아동극을 준비하고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입생으로 성결대학교에 입학하고 유아교육과의 여러 소모임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동극과 친해지고 유아교육과의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동극을 구성해보고 싶은 생각에 ‘락유’에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 <락유>참여 경험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과정, 참여과정에 대한 노하우 등)

유아교육과는 학우들이 주제에 따라 교구를 제작해서 전시하고,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는 ‘함초롬제’ 행사를 진행합니다. 락유는 함초롬제에서 아이들에게 동극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이끌기 위해 학우들과 의논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본을 쓰고 동요를 개사하고 동극에서 필요한 소품들을 직접 만들기 위해 락유의 학우들과 각자의 의견을 생각해서 여러 번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락유>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 기억에 남는 점 및 성과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방학 동안 락유 연극에 필요한 소품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시간과 역할 분배를 위해 동극의 등장인물마다 소품을 만들 인원을 배정하여 활동했습니다. 어떤 색깔을 사용하여 소품을 만들지, 어떻게 하면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지 여러 의논과 생각을 거쳐 준비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극할 때의 상황과 동선, 연기하는 인물의 손짓을 생각하며 수정할 부분과 구성할 소품을 만들며 평소 관람하던 자세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고와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락유’에 참여하며 좋았던 점은 직접 소품을 제작하며 앞으로 필요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발전한 것과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 효율적으로 교구를 제작할 수 있는 손재주 그리고 같은 학과의 선배, 동기들과 더 친해진 경험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방학 동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투자하며 관심 있던 분야인 동극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었고, 제작한 소품을 착용한 학우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4. <락유>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질 제고를 위한 개선 및 제안사항

제가 참여하는 동극이 아이들을 위한 연극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극은 아이들만을 위한 연극이 아니라 어른들도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으며, 어른들도 동극의 이야기를 듣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극은 아이들이 보는 연극이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락유에 참여하며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동극을 보고 이야기를 연기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경험해보며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동연극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락유’ 프로그램을 유아교육과 및 학교의 학생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락유’를 진행하며 아동연극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학우들과 많은 시간과 아이디어를 들여 제작한 소품을 여러 사람이 쓰는 강의실에 보관하고, 다른 교구들과 달아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더 튼튼하게 고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 번 이러한 일이 생기자 많은 시간을 들여 제작한 소품이기 때문에 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물건도 있지만, 공연의 배경에 쓰일 중요한 소품들이 망가지면 다시 고치는데 많은 시간이 쓰이므로 소품을 보관할 공간이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락유>를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

‘락유’에 참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교구를 만드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락유의 학우들과 역할을 나누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좋은 결과를 위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그것을 정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으로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교구 등을 제작하며 능력을 기를 수도 있지만 같은 유아교육과의 학우들과 생각을 나누고 힘을 합쳐 제작하고 이야기를 표현하며 함께 동극을 이끄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에 ‘락유’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